

영산강환경청,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작년 73억 투입, 올해 146억 확대”

소규모 영세사업장 경제 부담 경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광주·전남·제주 지역 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영세사업장에 국고보조금 73억 원을 들여 오염방지시설 146개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내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 수는 광주·전남 각각 39개, 78개다. 제주에는 29개의 방지 시설이 설치됐다.

지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고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감할 수 있었다고 환경청은 평가했다.

특히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제주 지역 한 업체는 흡착 시설을 여과까지 가능한 신규 시설로 교체해 각종 대기 오염물질량이 크게 줄었다.

해당 업체가 기존에 배출하는 먼지 농도는 7.2mg/m³이었으나 교체 이후 1.3mg/m³(감량률 82%)로 나타났다. 총탄화수소 농도도 127.5mg/m³에서 42.8mg/m³로 개선돼 66%가량 줄었다.

환경청은 올해에도 광주·전남·제주 소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46억 원을 지원한다.

/광주=김태수 기자

광주·전남, 3·1운동 기념행사 대부분 취소

공식행사 최소화... 10분내 마무리

코로나19여파로 약식행사만 진행 기념식 아닌 헌화·묵념 등 참배형식 퍼포먼스 등 참여 행사 모두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광주·전남지역 3·1운동 기념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공식행사도 최소 인원만 모인 채 10여 분 만에 마칠 예정이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1운동 101주년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취소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약식행사가 사실상 유일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광주는 상무시민공원 내 광주독립운동기념탑, 전남은 목포 부흥산 현충탑에서 각각 기념행사를 갖는다.

참석자는 광주의 경우 시장, 시의회 의장, 교육감, 광주보훈청장, 광복회 광주지부장 등 5명이고, 전남은 도지사



지난해 3·1운동 100주년 행사에는 광주 3000여 명, 전남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3·1 만세대행진 펼치는 광주시민들 /뉴스스

와 도의회 의장, 보훈단체 회원, 도단위 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지난해 100주년 행사에는 광주 3000여 명, 전남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기념식이 아닌 헌화·분향, 묵념 등 참배 형식으로 10여 분 만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퍼포먼스나 재현 행사, 합창공연 등은 모두 취소됐다. 지난해 전남 여수와 목포, 순천, 곡성, 장성 등지에서 열렸던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올해는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각급 학교 계기수업이나 교내 이벤트도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이 내달 9일로 전체적으로 늦춰지면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시민들, 특히 학생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 3·1절 관련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다”며 “신학기 등교도 3·1절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교내 행사준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동네방네

완도군, 약산도에 해양·산림 치유공간 조성

전남 완도 약산도에 해양·산림 치유공간이 조성된다.

완도군은 ‘약산의해·경(海·景), 치유에 담다’를 비전으로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다.

‘약산 치유의 숲’ 조성해 해양치유를

도입, 국내 최초 해양·산림 치유 공간인 약산해양치유체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2021년까지 해수크나이프(해수건기치유), 해양치유길·치유데크, 해수욕장, 해양치유의방 등이 조성된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봄 마중 나온 동박새

전남 화순군 청풍면 신리 마을에서 매화꽃이 활짝 폈다. 매화꽃의 꿀을 찾아 나섰을 동박새가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 있다. /화순군

상주시, 5일장 임시휴장 결정... 코로나 확산방지

상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주 5일장 임시휴장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확진환자 발생 등 지속적인 감염증 확산과 시장 상인 및 고객층의 노령화, 외지 상인의 유입, 다중

이 이용하는 등 시장의 취약성을 고려해 27일 장날부터 상황 해제 시까지 임시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수막, 입간판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해 임시휴장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장성군 드림빌사와 테마공원, 행안부 1차 마을기업 지정

“사과 가공품 제조·판매, 체험객 유치 총력”

인건비·운영비 등 5000만원 지원 사과나무 분양·수확체험 등 마련

장성군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2020년 1차 신규 마을기업에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최대 5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은 지난 2012년 농어촌 뉴타운으로 조성된 삼서면 장성 드림빌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펅지구 농촌테마공원의 사과단지, 잔디광장, 다목적센터,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위탁



장성군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1차 신규 마을기업사업에 선정됐다. /장성군

받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을 통해 18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들은 위탁받은 시설을 적극 활용해 사과장정, 사과즙을 제조·판매하는 2차 산업과 사과나무 분양, 각종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6차 산업을 추진해 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 측은 이번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사과떡, 사과파이 등 다양한 가공품을 제조·판매하고, 사과나무 분양, 사과꽃나들이 축제, 수확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체험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102년간 바다 지킨 ‘목포구등대’ 새 단장

전시실 등 내·외부 시설물 보수공사

1908년부터 불을 밝히기 시작한 102년 동안 항해하는 선박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 목포구등대가 새롭게 단장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의 입구인 ‘목포구등대’의 전시실과 모형등대, 경관조명 등을 교체하고, 내·외부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착공한 이번 사업은 2억원의 예산을 들여 6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전남 해남군 화원면의 목포구등대는 구(舊)등대와 신(新)등대로 구성돼 있다. 구(舊)등대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



목포구등대와 신등대. /목포해양수산청

379호로 지정돼 있으며, 신(新)등대는 범선모양의 형상으로 2003년에 설치됐다.

해남군에서는 최근 목포구등대를 활용해 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성예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목포구등대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화순군

쌀 변동직불금 일괄 지급

화순군이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오는 28일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이 정부가 정한 ‘쌀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의 85%까지 보전해주는 제도다.

2019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이 80kg 기준 18만9994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80kg 기준 5480원(ha당 36만7160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군은 벼 재배 4711농가에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14억1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Weather forecast for February 27th,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1~10°C), wind speed, and a map of South Korea showing regional weather conditions.